

■ 그림 여행



열차 C 193 칸
(Compartment C Car 193 c, 1938)

에드워드 하퍼 (1882 - 1967)
캔버스에 유채 50 cm x 45 cm 개인 소장품

여인이 홀로 기차 좌석에 앉아 있다. 창문 밖에는 노을이 지고 검은 숲과 흐르는 강물 그리고 다리가 지나간다.

여인을 여행 복장을 잘 갖춘 것 같다. 모자와 정

장 원피스를 단정하게 입고 있다. 그런데 보통 여행객처럼 창밖을 보고 있는 들뜬 모습이 아니다. 눈을 내리깔고 무엇인가 골똘히 읽고 있다. 팜플렛처럼 가벼운 읽을거리 같다. 여인은 사실 읽기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그저 시선을 고정하고 생각에 잠겨 있을 뿐이다.

개 그려진 기차칸 내부. 녹색은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혀 주며 사색적인 기차칸 내부의 정경을 감싸 안는다.

여인은 기차를 타고 있는 여행객이면서, 동시에 여행에 전혀 관심 없는 냉정한 승객이다. 창밖에 지나가는 풍경은 잊어버린 채 여인의 시선은 내면을 향하고 있다. 낯선 공간으로 이동하며 일상으로부터의 도피를 시도하는 것일까? 익숙한 공간과 익숙한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 것일까?

일상의 소음은 사라지고, 레일 위를 달리는 규칙적인 열차의 바퀴소리만이 들린다. 실내는 외부로부터 차단되고 조그만 창틀에 갇힌 창밖의 풍경은 공간과 시간의 의미를 잊게 한다. 그 순간, 그 속에 머물고 있는 여인의 존재는 완벽히 혼자가 된다. 혼자이나 외롭지 않고, 외롭지 않으나 만족해 보이지도 않는다. 일상을 피해 왔지만 오히려 지금은 기차칸에 갇혀 탈출할 수 없는 것 같기도 하다.

자신의 집이 아닌 어딘가 낯선 장소에서 홀로 실존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고독한 현대인의 모습이다. 미국 화가 에드워드 하퍼가 그렸다.

김 동백

■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로 파가니니

니콜로 파가니니(Niccolò Paganini, 1782년 10월 27일 ~ 1840년 5월 27일)는 이탈리아 제노바 출신의 바이올린 연주가, 작곡가이다. 그는 자신의 곡을 제대로 연주할 사람이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다섯 곡밖에 작곡을 하지 않았다.

파가니니가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는 귀신도 나와 춤을 추었다고 할 만큼 기교가 뛰어났다 한다. 그는 4옥타브에 걸치는 넓은 음역을 자유자재로 구사했으며 음을 하나하나 끊어 연주하는 스타카토 주법, 현을 손끝으로 핑거해서 소리를 내는 피치카토 주법, 현에 손가락을 가만히 대서 휘파람 같은 소리를 내는 하모닉스, 이중 트릴 (떨꾸밈음) 등의 화려한 연주 기법을 만들어 냈다.

또한 파가니니는 G현 하나로만 연주하는 곡을 만들었는데, 그의 평생을 따라다닌 괴소문이 바로 거기서 비롯되었다. 파가니니가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 탁월한 실력을 얻었으며, 바이올린 활을 움직이는 것은 그가 아니라 사탄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교회를 중심으로 파가니니를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세력이 생겨났다. 시인 하이네는 공연 중에 파가니니의 발치에 '사슬'이 감겨 있고, '악마'가 나타나 연주를 도왔다고 단언했다.

파가니니는 사망 후에 고향인 제노바에 묻히고 싶다고 유언했는데, 악마의 바이올리니스트라는 교회 측의 반대로 36년이 지난 뒤에야 그의 유언대로 제노바의 교회 묘지에 정식으로 묻힐 수 있었다.

용문루

GRAND OPENING

Authentic Chinese Korean Cuisine
Eat Good, Feel Good



각종 파티 및 단체 모임 환영

파티룸 10~50명 수용 가능

* waiter, waitress 구합니다.*

용문루 T.626.363.4961
www.yongmoonlu.com

월,수,목,금 11:30am ~ 3:00pm
4:30pm ~ 9:00pm 토,일 11:30am ~ 9:00pm

19240 Colima Rd. Rowland Heights, CA 91748